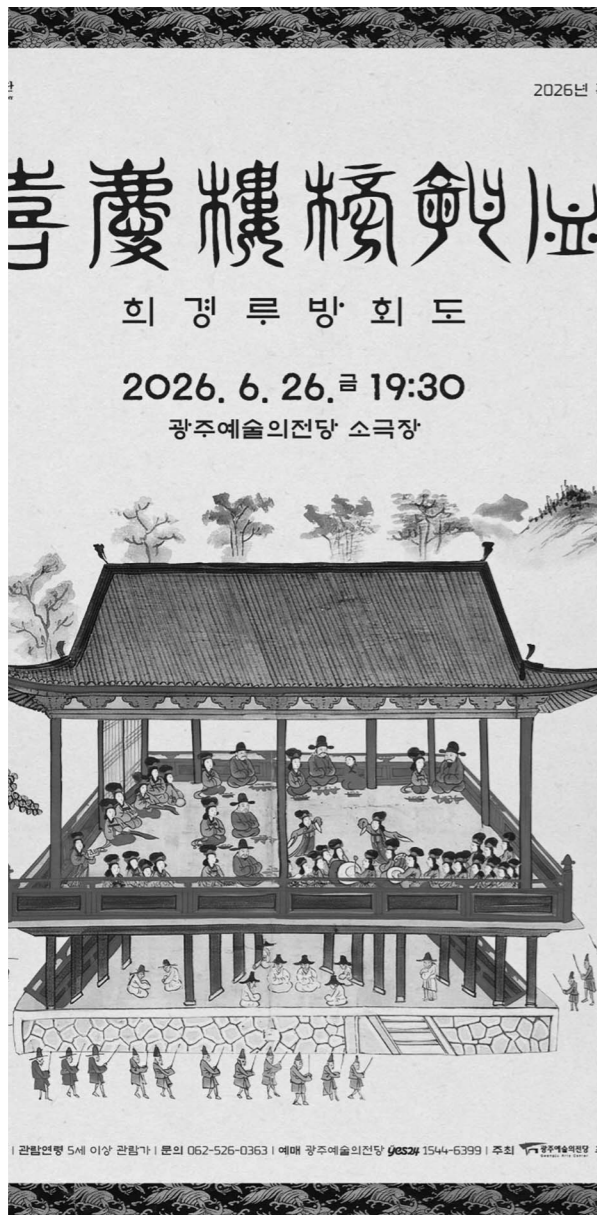


400년 전 희경루에 흐르던 풍류, 창무극으로 되살린다

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희경루방회도' 26일 광주예당

남도소리·무용 재해석 '눈길' '전석 매진' 속 지역 콘텐츠 기대



조선시대 광주목의 대표 누정인 희경루. 이곳은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는 누각이 아니었다. 과거에 급제한 문사들이 다시 모여 시를 짓고 음악을 나누며 풍류를 즐기던 문화예술 교류의 공간이었다. 광주가 오래전부터 예향으로 불려온 배경에도 희경루와 같은 문화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500여 년 전 희경루에 모여 학문과 우정, 예술을 나눴던 선비들의 이야기가 창무극으로 되살아난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국악의 날 기념 특별기획공연 '희경루방회도'를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1567년 광주 희경루에서 열린 계회 장면을 담은 보물 '희경루방회도'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조선 명종 22년 1546년 증광시의 동기생들이 광주 인근의 누정(樓亭)인 희경루에서 20년만인 1567년에 다시 만난 것을 기념해 그 감회를 간직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유산으로 꼽힌다.

당시 희경루는 문사들이 시와 음악을 나누고 교류하던 공간이었다. 과거시험에 급제한 인물들이 한양이 아닌 광주에서 다시 모임을 가졌

는 사실 자체가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이 그림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공연예술로 확장했다. 박물관 유리벽 너머 사백여 년 동안 멈춰 있던 한순간을 무대 위로 불러내 남도소리와 춤, 연희를 통해 새롭게 해석한다.

공연은 광주목사 오장환이 증진된 희경루에서 옛 친구들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어린 시절 희경루에 올라 함께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은 세월이 흐른 뒤 각각의 삶을 살아간다.

20년 전 봄날의 희경루, 봄날의 정, 금의환향, 화제, 눈물 어린 재회, 희경루 등 6장으로 펼쳐 무대를 선사한다. 사랑과 이별, 성공과 좌절, 우정과 희생을 겪은 이들은 다시 희경루에서 재회하며 잊고 있던 인연과 삶의 의미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

특히 장원급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서풍과 설향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비롯해 친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네 선비들의 선택은 작품의 주요 서사로 전개된다.

각 인물은 무관의 기개, 선비 정신, 청춘의 사랑과 갈등, 우정과 의리 등을 상징하며 서로 다

른 삶의 궤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작품은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오늘날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담아낼 예정이다.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창극과 무용을 결합한 '창무극' 형식이라는 점이다. 소리와 연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창극에 춤을 적극적으로 결합해 음악과 움직임이 함께 서사를 이끌어간다. 네 명의 선비가 한량무를 추며 소리를 이어가는 장면은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기대를 모은다.

전통 국악 선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화성을 가미해 국악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이 자연스럽게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 역시 주목된다.

여기에 채항순 안무가의 섬세한 움직임과 배우들의 역동적인 군무가 더해져 조선시대 희경루의 풍류와 정취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번 공연은 회화와 공연예술의 경계를 허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지된 그림 속 인물과 공간을 살아 움직이는 무대로 확장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새로운 감상 방식을 제시한다. 누각의 이름처럼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를 지닌 '희경(喜慶)'의 순간은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인연의 소중함과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온다.

공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역 역사문화 자산을 소재로 한 창작 국악극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며 일찌감치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공연은 광주 초연 이후 전국 무대로 활동 범위를 넓힌다. 오는 9월 17~18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리는 세계음악극축제(WTIF)에 참가하는데 이어 25일에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교류공연을 올린다.

창극단은 이번 작품을 일회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광주를 대표하는 공연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문화재단과 내년에 광주 남구 천변좌로 희경루 일대에서 야외공연을 선보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용호 예술감독은 "지역을 소재로 한 공연을 기획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았다가 '희경루방회도'를 발견하고 작품화를 구상하게 됐다"며 "400여년의 시간을 지나 오래된 그림 속 인물들을 음악과 무용으로 되살린 무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공연예술로 재탄생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전국 무대에서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시립창극단은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국악의 날 기념 특별기획공연 '희경루방회도'를 선보인다. 광주시립창극단원들이 특별기획공연 '희경루방회도'에서 희경루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여주며 있다.



시립창극단 단원들이 최근 광주예술의전당 대연습실에서 '희경루방회도' 중 한량무를 추는 선비들의 호연지기를 공연하는 모습.

광주 성장, 전남 위축...호남 공연시장 양극화

광주 17개 시·도 중 증가율 최고...전남 매출액 급감 시장 성장 거점은 긍정적...소비 기반 약화는 문제점

수도권 공연시장으로의 집중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올해 1분기 호남 공연시장이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광주에서는 공연이 늘고 관객이 몰린 반면 전남에서는 관객과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2026년 1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연건수는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공연회차 역시 465회로 전년보다 늘었고, 티켓예매수는 10만 6588매로 지난해 5만 5187매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티켓판매액도 33억

4700만원에서 87억 2100만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티켓 1매당 평균 판매액 등 수익성 지표로는 아직 대전(10만 4581원)이나 서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광주는 공연 공급 확대가 관객 증가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공연 인프라가 지역 공연 수요 확대에 이어지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전남은 상반기 흐름을 보였다. 전남의 공연건수는 54건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공연회차는 371회에서 262회로 줄었다.

티켓예매수는 3만 1832매에서 2만 3343매로 감소했고, 티켓판매액은 17억 2300만원에서 7억

2100만원으로 58.1% 급감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다.

공연 공급이 늘었음에도 관객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뮤지컬 부문에서도 전남은 티켓판매액이 35.8% 감소해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공연시장 전체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 공연건수는 4459건, 티켓예매수는 533만 1896매, 티켓판매액은 3940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9.0%, 12.6%, 21.1% 증가했다.

그러나 호남권 내부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주가 비수도권 공연시장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는 사이, 전남은 공연 소비 기반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 문화 인프라와 관객 접근성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공연시장 회복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호남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광주시립·전남도립미술관 명칭 변경 '가닥'

시립미술관→광주미술관, 도립미술관→전남미술관

광주와 전남이 내달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는 가운데 문화예술기관의 명칭 역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명칭 변경이 유력한 문화예술 기관으로는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이다.

14일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광주시립미술관이 광주미술관으로, 전남도립미술관이 전남미술관으로 변경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본보 6월 2일자 16면〉

이는 기존 명칭이 7자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미술관'으로 명칭을

불러야 하지만 최대 13자로 늘어나기 때문에 번거로운 뿐만 아니라 쉽게 명칭을 언급하거나 기억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전남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사업자를 바꾸고, 추후 홈페이지나 소장품 등을 통합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다. 양 미술관 간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하고자 제안한 것은 맞다. 서로 구두로 협의는 했다. 현재의 관장 체제로 가는 것인지, 어떤 통합미술관장 체제가 신설되는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창립 15주년 축하 댓글 이벤트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은 창립 15주년(6월23일)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시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재단 창립 15주년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그동안 재단에 보내준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재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gjwomensfamily)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물에 창립기념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고 친구를 태그하면 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태그한 지인이 함께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재단은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60명을 선정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

하고 개별 안내 후 상품을 발송할 계획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여성·가족·돌봄·성평등 분야의 정책 연구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번 이벤트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재단의 역할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이 15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재단의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jwf.or.kr) 또는 인스타그램(@gjwomensfamil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